SHOW REPORT

Since 1969
KES2012
10.9(화)▶12(금)
킨텍스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한국전자산업대전 결과보고서

www.kes.org

CONTENTS

Report on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2**
한국전자산업대전 **결과보고서**

04 Outline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2
06 Overview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엿본 미래, 인간과 기술이 하나되다
10 Opening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12 Gala Show 한국전자산업대전 갈라파티
14 KES 어워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제품 총망라 2012 KES어워드 시상!
16 SAMSUNG 더 스마트한 삶이 시작된다
18 LG 상상 그 이상의 기술, 기대 그 이상의 감동
20 IT융합/산업융합 3차 산업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융복합 시대
22 Well-Being Home Appliances 생활가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다
24 Digital Broadcasting 디지털라이프 시대로 도약하는 스마트 방송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다
26 ICT & Multimedia 보고, 듣고, 즐기고 느껴라! 오감을 만족하는 미래 멀티미디어의 도래
28 World 3D Expo 보다 더 실감나게, 보다 더 정교하게 구현된 3D 영상
29 Software & Mobile 21세기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 그 단초가 여기에?
30 Parts & Materials 최첨단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기기의 심장이 바로 여기!
32 디스플레이대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33 반도체대전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다
34 MEDIA COVERAGE 국내외 언론보도
36 SALES FAIR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전시회,국내외 바이어들이 모여 뜨거운 성과를 일궈내다!
37 Statistical Results 참가실적 및 부대행사
38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3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 참가안내**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2 OUTLINE

• **행사명**

[2012 한국전자산업대전]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2

• **일시 / 장소**

일 시 : 2012년 10월 9일(화) ~12(금), 4일간, 10:00~17:00
장 소 : 일산 KINTEX

• **전시규모**

면 적 : 53,541m²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
참가업체 : 742개사 (해외 209개사)
참 관 객 : 57,842명 (해외바이어 2,878명)
상 담 액 : 약 17.5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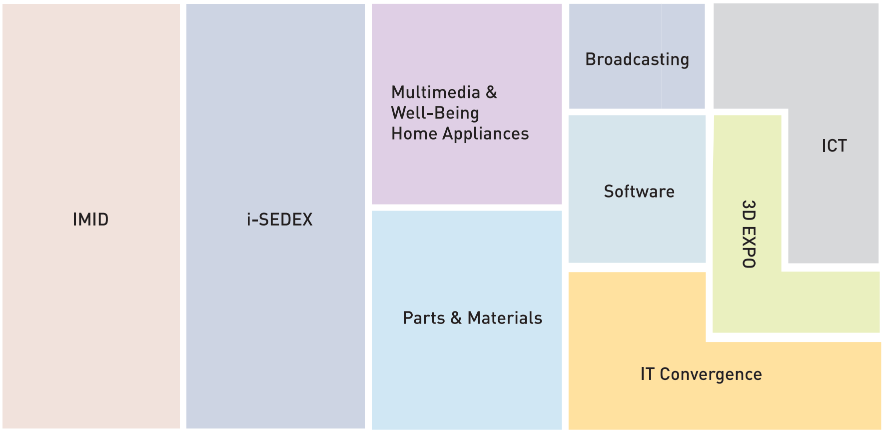
• **전시내용**

웰빙가전, 정보통신,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IT융합, 3D, 방송장비

• **추진기관**

주 최 : MKE 지식경제부, 세계속의 경기도
주 관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후 원 : NIPA, ETRI, KETI,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SW전문기업협회, 한국IT전문가협회

• **전시관 구성**



Korea Electronics Shows What IT Will Be.
한국의 전자산업이 IT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 **부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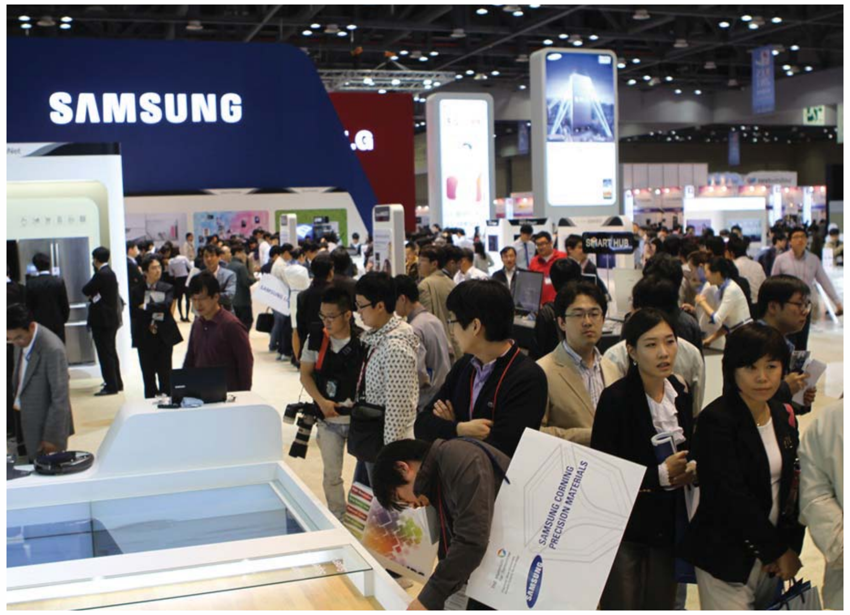
- Creative Futures Forum
- IT 산업전망 컨퍼런스
- 아시아 전자정보통신 정책좌담회
- 융복합 국제컨퍼런스
- 산업융합 'Young Meister' 프로그램
- IP-SoC Partner Forum 2012
- 반도체 시장동향세미나
- ISMP 2012
- 아날로그 반도체 리더스 포럼
- 반도체장비 안전표준 교육
-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 기술이전 Fair 2012
- 벤더세미나
- 시스템 <반도체 협력의 날>
- 글로벌 3D 기술포럼
- 마이크로 접합 · 패키징위원회<2012 심포지움>
- Bourns Seminar
- LED 조명 및 무선통신 기기 국내외 인증세미나
- 직류표준화 연구회
- 전력반도체 최신기술 동향 및 향후전망 세미나
- 제3회 전자산업 환경경영 포럼-에코디자인과 그린비즈니스 전략과 사례

• **구매 및 수출상담회**

- 러시아 전자제품 관련부품 구매 및 수출상담
- 브라질 CCTV 제품구매 및 수출상담
- 유럽/미국 3D제품 방송음향장비 구매 및 수출상담
- 일본 IT부품 제품 조달 관련 제품구매 및 수출상담
- 중국 IT100강 기업 구매 및 수출상담
- 인도 정보통신 관련 제품구매 및 수출상담
- 필리핀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제품구매 및 수출상담
- 나이지리아/이집트/카메룬 가전, 멀티기기 관련 제품구매 및 수출상담
- 중동 전자제품 구매 및 수출상담
- 시스템 반도체 비즈니스상담회
- 디스플레이 중국, 대만 초청바이어 무역상담회

• **이벤트**

- 전자산업 채용 박람회
- 갈라쇼(글로벌 바이어 초청 만찬 간담회)
- 3D Film Festival, 3D융합산업인의 밤, 글로벌 3D 기술포럼



2012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엿본 미래 인간과 기술이 하나되다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2012 한국전자산업대전(Korea Electronics Grand Fair)'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지식경제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주관한 한국전자산업대전은 1969년 첫 개최한 이래 올해로 43회를 맞았으며, 올해는 'Korea Electronics Shows What IT Will Be!'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제반도체대전(i-SEDEX) 및 국제정보디스플레이 전시회(iMiD)와 함께 한층 더 큰 규모의 행사 결과를 일궈냈다.

한국전자산업대전은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서 IT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IT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통합 운영해 아시아 최대 IT컨퍼런스 및 IT전시 행사로서의 위상 확립 및 고객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총 전시면적만 53,541㎡(킨텍스 5개홀)에 달하는 규모로 치러진 이번 전시회에는 약 743개의(해외 20개국 209개사) 업체가 참가했으며, 나흘간 다녀간 참관객은 57,84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업체간 상담액수는 약 17.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전자산업의 중추로 우뚝 선 양대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듯, 행사장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함으로써 그 위상을 뽐냈다. 최대의 경쟁사이기도 한 두 회사는 출품한 제품군의 수가 유사했던 반면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달랐다. TV 분야의 경우, 삼성전자는 음성이나 손짓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미래형 TV인 스마트TV ES8000을, LG전자는 스마트폰보다 얇은 초슬림 디자인에 또렷하고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OLED TV를 주력으로 선보였다.

양사는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홍보전을 펼쳤다. 고성능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인간 중심의 사용자 환경을 지향하는 삼성전자 갤럭시S3, 화면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 파격적인 디자인에 고화질 True HD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LG전자의 옵티머스G가 대표주자. 이외에도 양사는 PC와 프린터, 냉장고, 청소기 등, IT가전과 주방가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각기 다른 산업이 뭉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다, 'Re-Visioning'

자동차, 조선, 의료, IT 등 첨단 IT융합제품과 바이오, 로봇 등 각기 다른 산업이 융합해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IT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인프라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동차-IT, 조선-IT, 의료-IT 등 기존 산업군에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융복합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물결은 한국전자산업대전에도 찾아왔다. IT시스템을 접목해 운전자를 돕는 자동차,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인체 해부 실습용 가상 해부대, 트럭과 포크레인이 만난 모바일 포크 트럭, 사람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동작 인식 센서를 이용한 증강현실 체험시스템 등 다양한 융합 IT제품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연과 가까워지다, 'Natur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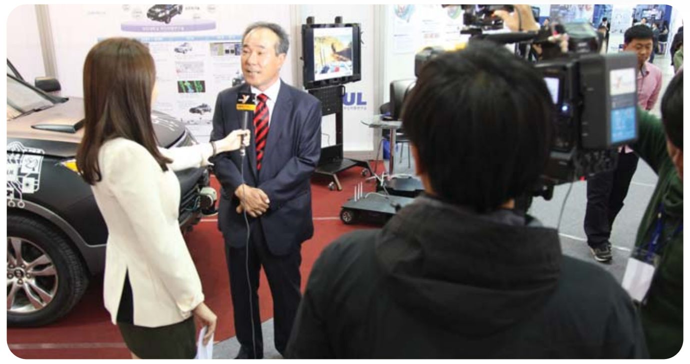
단순한 화면 속 디지털 세상이 아닌 실사의 자연상태에 근접하는 IT 스마트 기기들이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의 면면을 장식했다. 자연에 가까운 화면과 소리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나날이 발전, 기술도 진화함에 따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자연에 가까운 디지털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졌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고화질 RGB 방식의 동작/음성을 인식하는 55인치 OLED TV와 LG전자가 선보인 WRGB 방식의 두께 4mm에 불과한 OLED TV는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아냈다. 또한, 100인치 3D 화면을 구현하는 3D HMD, 3D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250인치 스크린, 풀HD보다 4배 더 선명한 4K 영상 출력 시스템 등 올해도 초자연 3D 영상이 한국전자산업대전을 수놓았다.

가전 제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Barrier-Free'

눈을 감고도, 말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전 접근성이 증대되고 있다. 첨단 디지털 기기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어도 모든 디지털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융합이다. 최근 들어 웰빙가전이 주목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 없이도 편하게 원적외선으로 즐기는 반신욕기, 노약자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벽걸이 세탁기, 장애인을 위한 동작/음성 인식 스마트TV 및 스마트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알림 밥솥과 정량추출 버튼기능의 한뼘정수기, 동작인식센서, 자이로센서를 탑재하여 스스로 자율청소가 가능한 로봇청소기 등 생활 속 가전이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한걸음 다가섰다.

아날로그 시대를 뛰어넘어 급격한 디지털 시대로, 'Rapid'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됨에 따라 아날로그를 넘어 급격한 디지털라이프 시대로 도약하는 본격적인 스마트 디지털 방송 시대가 열린다. 이에 발맞춰 IPTV, 스마트TV와 같은 차세대 방송환경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자산업대전 현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최초 디지털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한 오디오 프로세서, 실내에서도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블루투스를 통



해 스마트폰에서도 원격 중계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방향 무선그룹폰 등이 전시됐다.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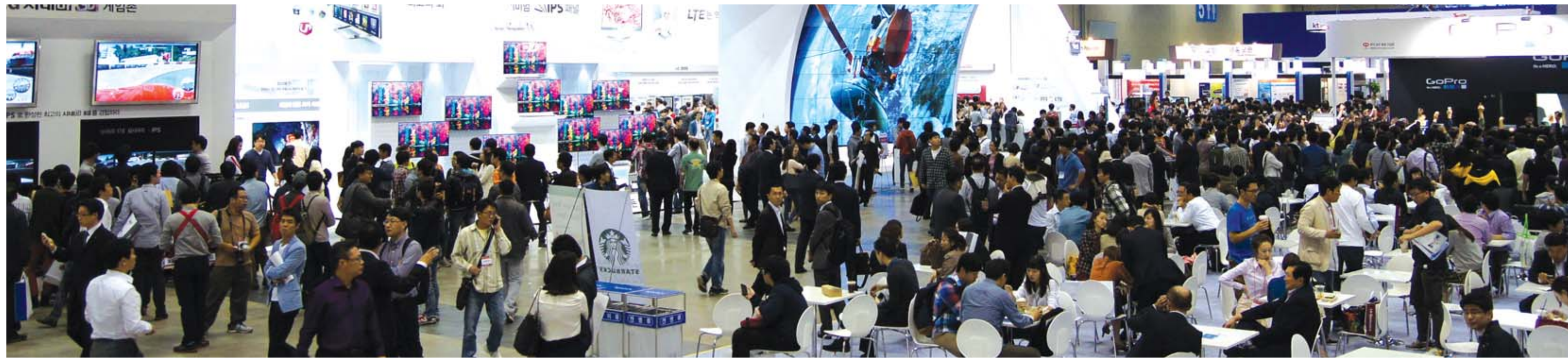
한국전자산업대전 개최기간 동안 IT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컨퍼런스'와 IT 산업에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 융·복합과 관련된 '융·복합 국제 컨퍼런스' 등도 함께 열렸다. 국제컨퍼런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각 미래의 날, 산업의 날, 협력의 날로 나뉘어 국내외 경제 및 IT산업 전망에 대해 토의하고 IT주력 품목 및 전략 시장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이 국가별 전자IT 정책 및 협력에 대해 토의했으며, 한국, 브루나이, 베트남 등 7개국이 참여해 아시아 전자정보통신 산업협력협의회 출범 논의 및 합의문에 서명했다.

비즈니스 전문전시회로 거듭나다!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전시회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많은 국내외 바이어들이 모여 활발한 상담 성과를 이끌어냈다. 반도체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에 75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157회의 상담을 통한 상담액 1.9억 달러(계약 예상액 1,400만 달러)의 결과를 냈다. 또한, 디스플레이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에 참가업체 28개사 36명, 바이어 20개사 39명이 참여, 114회의 상담회수를 통해 상담액 8,000만 달러(계약 예상액 53만 달러)의 결과를 달성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시장 내 무역상담회장(Hall5)에서 치러진 글로벌 무역 상담회에도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첫날, AfICTA(나이지리아, 이집트), 유럽/미국, 중국(HQEW), 둘째날 CMAI(인도), SEIPI(필리핀), CETIA(카메룬, 나이지리아) 러시아, 일본(소니, 후지제록스, 옴론, 야스카와전기, 오카노전기), 중국 IT 100강 기업, 셋째날 중동 Qatar, UAE, KSA 등 300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IT관련 제품 구매 및 수출을 상담해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밖에도 전시장 내 잡페어 상담장에서는 전자산업채용박람회가 열렸으며, 디벨로피언스, 미래테크 등 26개사의 55명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했으며, 단국대, 중앙대, 폴리텍 대학 등 총 472명의 구직자가 이 곳에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2012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 테이프커팅 세레모니

2012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2012년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에는 한국을 넘어 세계 IT업계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을 비롯하여 삼성디스플레이 조수인 사장, 삼성전자종합기술원 김기남 원장, LG이노텍 이웅범 사장, 파나소닉 코리아 노운하 사장 등 각계각층의 귀빈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한국 IT산업 발달에 기여한 기업인들에게 훈장 및 상장이 수여되었다. 개막식 이후, 국내외 전자IT산업의 주역들로 구성된 VIP투어가 이루어졌고 발 디딜 틈없는 뜨거운 취재경쟁은 한국전자산업대전의 성공적인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왼쪽), 윤종용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 (가운데), 조수인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 2012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장 전경

▲ 개막 공연을 진행한 개그맨 김수영(왼쪽)과 유민상(오른쪽)

▲ 개회사를 하고 있는 윤종용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

▲ 산업훈장 금탑을 수상한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대우일렉트로닉스 김성옥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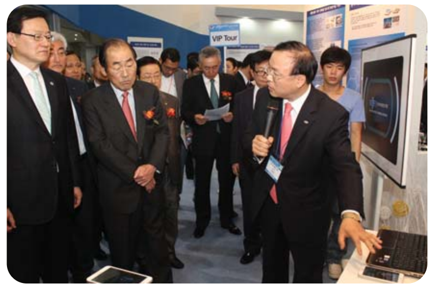
▲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LG전자 류재철 상무

▲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성문일렉트로닉스 이강일 대표

▲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에 나선 수상자들

▲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주요 귀빈들

▲ 아나토마지 코리아의 가상 수술대를 체험하고 있는 홍석우 장관



▲ 전자부품연구원 OTFD 디스플레이 구현기술을 체험하는 VIP

▲ 파나소닉 코리아 하이엔드 카메라를 체험하는 VIP

▲ 세계를 제패한 삼성전기 MLCC, HDI를 감상하는 VIP

▲ 삼성전자 부스의 OLED TV를 체험하고 있는 VIP

▲ 환영사를 하는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2012
한국전자산업대전 갈라파티

2012 한국전자산업대전 첫째날인 10월 9일 저녁에는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참가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과 초청 바이어 및 참가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갈라쇼가 개최되었다. 총 3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갈라쇼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윤종용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만찬과 함께 각종 공연과이벤트가 이어져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진 축제의 장이 되었다.

▲ 갈라파티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윤종용 회장

▲ 건배를 하며 즐거워하는 귀빈들

▲ 한국 전통공연을 선사한 국악 퍼포먼스 그룹 천년호의 공연

▲ K-pop과 IT를 결합한 9인조 아이돌 그룹 '나인뮤지스' 공연

▲MC를 맡은 개그맨 김성원과 흥겨운 해외바이어들

▲ 갈라파티를 즐기는 해외바이어들

▲ 세계 각국의 술을 혼합 하는 '월드 주 세레모니'를 펼친 칵테일 퍼포먼스팀 '아도르'

▲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서로의 말춤 실력을 뽐내고 있는 참가자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제품 총망라 2012 KES 어워드 시상!

올해 한국전자산업대전은 'KES 어워드'를 신설, 해외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신제품(New), 디자인(Design), 콘텐츠(Contents) 분야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이는 17개사 19개 제품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차세대 TV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OLED TV, 노약자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벽걸이 세탁기 등 유니버설 디자인과 새로운 개념의 UI/UX를 채택한 제품이 선정되었으며, 이 제품들은 장차 한국에서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Ⅰ. 2012 KES 어워드 신제품(New) 부문

1. 삼성전자 OLED TV(55인치)

▲ 세계 최초 고화질 RGB 방식, 동작/음성인식을 적용한 OLED TV

2. LG전자 OLED TV(55인치)

▲ 세계 최초 WRGB 방식, 4mm 초슬림으로 디자인한 OLED TV

3. 래드손 디지털오디오 프로세서

▲ 세계 최초로 디지털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한 오디오 프로세서

4. LG전자 옵티머스G

▲ 커버유리 완전 일체형 터치 기술의 세계 최고 스펙을 탑재한 스마트폰

5. 아큐픽스 3D 안경 디스플레이

▲ 100인치 3D화면을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최소형 3D HMD

6. 대우일렉트로닉스 세탁기 mini

▲ 설치장소, 높이 등에 제약이 없는 벽걸이 세탁기

7. 모컴테크 대형LED 전광판

▲ 세계 최초 3D/2D 전광파워 250인치 스크린

Ⅱ. 2012 KES 어워드 디자인(Design) 부문

1. 삼성전자 모니터 SB970

▲ 전문가를 위한 프리미엄급 성능의 모니터

2. 웅진코웨이 한뼘정수기

▲ 장애인을 위한 효과음과 정량추출 버튼, 잠금기능 등을 탑재한 정수기

3. 쿠쿠 IH전기압력보온밥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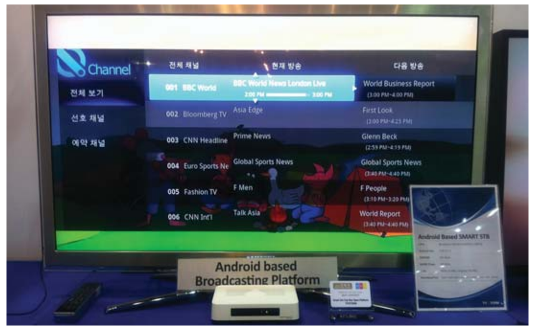
▲ 장애인을 위한 점자버튼, 고령자를 위한 작동순서안내 광네비 기능을 탑재한 밥솥

4. 유진로봇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아르떼

▲ 카메라, 동작인식센서, 자이로센서 등을 탑재해 스스로 청소하고 충전하는 청소기

Ⅲ. 2012 KES 어워드 콘텐츠(Contents) 부문

1. TV스톰 오픈플랫폼



▲ IPTV, 케이블, 지상파, 위성 방송 등을 한번에 해결하는 TV플랫폼

2. 지우미디어 미라클뷰

▲ 대용량 멀티미디어 전송 무선 AP(Access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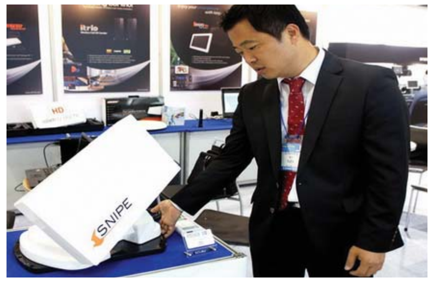
3. H&S 4D 바이크

▲ 세계 최초로 3D 모니터를 탑재한 4D 자전거 시뮬레이터

4. 비비알 스마트TV 변환기

▲ 일반 TV도 스마트TV로 변환하는 손가락만한 크기의 초소형 셋톱박스

5. 아이두잇 스나이프 위성안테나



▲ 유럽의 모든 위성수신, 완전자동 위성추적 시스템 휴대용 위성안테나

6. 그렌텍 휴대용 살균수제조기 '리아제로 M'

▲ 세계 최초로 개발된 휴대용 살균수제조기

7. 민스타 휴대폰액세서리

▲ 300여 개의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8. 트라이캠 가정용 의료기기

▲ 가정용 의료기에 첨단 데이터분석기술을 적용한 가정용 의료-IT 제품

SMART SAMSUNG

더 스마트한 삶이 시작된다

삼성전자는 동작/음성을 인식하는 고화질 RGB 방식의 55인치 OLED TV와 스마트TV를 전면에 내세워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더불어 T-타입 내부 구조의 'T9000' 냉장고와 3중 메탈냉각 방식의 567리터 지펠 아삭 'M9000' 김치 냉장고, 버블 세탁 방식에 두 개의 워터샷을 더한 '버블샷2' 드럼세탁기와 흡입된 먼지와 공기를 '큰 먼지방'과 '6개 미세 먼지방'에서 두 번 걸러 내는 진공청소기 'L9000', 음성인식으로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탱고 등 여러 생활가전 제품을 함께 선보였다.

또한,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갤럭시노트10.1 등 새로운 갤럭시 모바일 기기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해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윈도8을 탑재한 고성능 노트북 '시리즈9', '시리즈7', '시리즈5' 노트북 및 올인원PC를 선보였으며, 먼지 커버를 탑재해 프린터의 수명을 연장한 모노 레이저 복합기, 세계 최초로 올인원 보드를 탑재한 컬러 복사기 등도 전시했다. 한편, 스마트폰과 프린터기를 연결해 사진 등 이미지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도 발표했다.

▲ 삼성전자 스마트TV

▲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 삼성전자 스마트TV콘텐츠 체험관

▲ 삼성전자 지펠 M9000

SMART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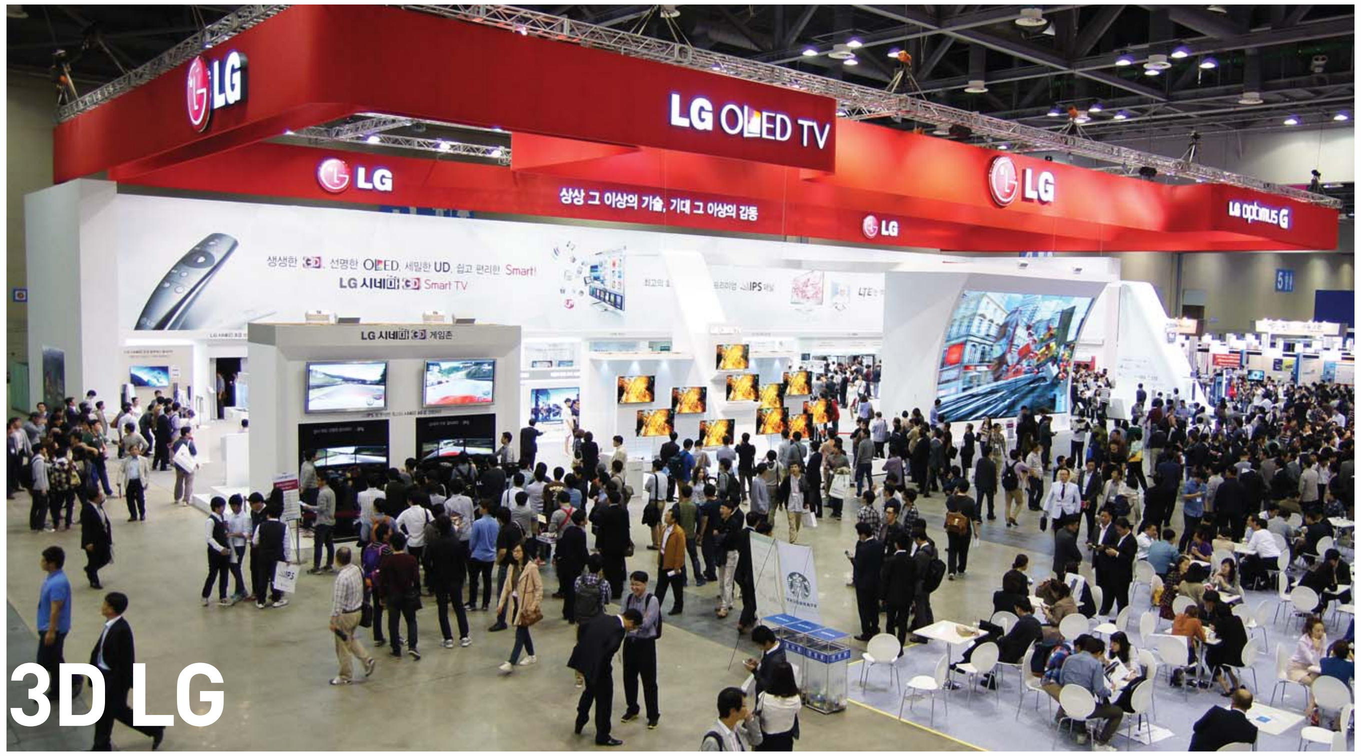
▲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 삼성전자 55인치 OLED TV

▲ 삼성전자 주변기기들

▲ 삼성전자 프리미엄 모니터 현장

▲ 많은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부스에 방문했다



상상 그 이상의 기술, 기대 그 이상의 감동

LG전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 TV를 전면에 내세웠다. 세계 최초 WRGB 방식을 적용한 OLED TV는 두께가 4mm에 불과한 초슬림 디자인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동작/음성인식 리모컨을 적용한 3D 스마트 TV, 풀HD 보다 화질이 4배 더 선명한 국내 최대 크기의 84인치 UHD TV도 전시했다. 또한 세계 최대 용량인 910리터의 4도어 냉장고 및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의 생활가전 제품도 함께 선보였다.

IT 제품도 다양했다. 커버유리 완전 일체형 터치 기술과 현존 최고 사양의 옵티머스G, 전작의 4:3 화면비를 계승한 옵티머스뷰2 등의 스마트폰을 선보였으며, 자사 스마트폰에 어울리는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도 전시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크기에 불과한 세계 최소형 모바일 포토프린터, 아이들을 위한 태블릿PC '키즈패드'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2012년 4분기 출시 예정인 PC 제품군도 발표했다. 노트북과 태블릿PC 기능을 더한 하이브리드PC 'H160', PC를 부팅하지 않아도 TV를 바로 시청할 수 있는 일체형 PC 'V325'와 2013년형 울트라북 'Z360' 등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23인치 IPS LED 패널을 탑재한 멀티터치 모니터 'ET83', 21:9 화면 비율에 WQHD 해상도의 전문가용 모니터 등도 선보였다.

▲LG전자 55인치 OLED TV

▲인터넷전화를 체험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LG전자를 찾은 많은 관람객

▲옵티머스G를 체험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윤종용 회장

▲시네마 3D TV 모션인식 기능을 체험중인 관람객

▲옵티머스G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LG전자 스마트TV게임 체험

▲LG전자 윈도우 8 올인원PC

LG ELECTRONICS

▲LG전자 부스를 방문한 외국 바이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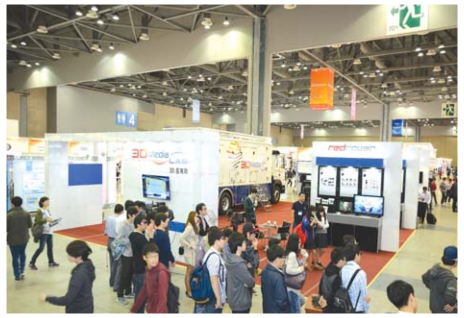
▲LG전자 3D게임 체험

▲LG전자 스마트TV체험

IT Convergence

3차 산업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융복합 시대

이동통신, 자동차, 조선, 의료 등 기존의 산업과 IT 기술 또는 서비스가 만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융복합 시대를 일컬어 제3차 산업 혁명이라고도 한다. 융복합 과정을 통해 다른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이뤄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전자산업대전에는 현대자동차, PLK테크, 에스엠중공업, 아나토마지코리아㈜, 이지케어텍, 국민대 무인차량로봇연구센터 등 국내 IT/산업융합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기관들이 대거 참여, 최신 융복합트렌드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3D 융합관

▲3D방송장비차

▲ 휴머노이드 스마트로봇(퓨처로봇)

▲ 모바일 기기를 자동차 카오디오와 연결하여 소리를 출력할 수 있다

▲ 산업융합관

▲ PLK테크의 세계 최초 칼라 영상인식 기술활용 차선이탈경보기술

▲ IT융합관

▲ IT기술과 접목하여 모바일성이 향상된 포크트럭(SM중공업)

▲ 세계 최초 인체해부 실습용 가상 해부대 (아나토마지코리아)

▲ 캐리마가 개발한 국내 최초 광 조형기

▲ 국민대 무인차량 로봇연구센터

▲ 첨단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적용해 최첨단 IT서비스를 선보인 현대자동차

▲ 모바일 기기와 자동차 카오디오의 커넥티드 사운드시스템 시연

▲ 뼈 진동을 통해 고막을 거치지 않고 소리를 전달하는 골전도 헤드폰(휴리아)

Well-being Home Appliances

생활 가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활 속 가전기기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잘 사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된 현대 사회에서 아날로그는 디지털의 차가운 느낌에 반해 따뜻하고 감성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최근 들어 웰빙 가전이 주목 받는 것도 이 때문 아닐까.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점자 버튼이 달려 있거나, 음성으로 현재 메뉴를 알려주는 등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한 IT제품도 크게 늘어 사회약자들을 배려하는 생활 속의 IT제품이 대거 소개되었다.

▲ 세계 최초 흐르는 물 살균+정수방식의 버블살균수기(그렌텍)

▲ 스마트맵핑기능을 탑재한 세계 최저 두께 청소 로봇(삼성전자)

▲ 세계 최초 3D모니터를 장착한 4D 자전거 시뮬레이터(H&S)

▲ 매직바이크

▲ 설치 장소와 높이에 제약이 없는 벽걸이형 세탁기

▲ 5축을 이용해 말의 동작을 재현한 웰빙 승마기

▲ 물이 없어도 원적외선으로 즐기는 반신욕기(월단)

▲ 웰빙 가전의 명가, 파나소닉관

▲ 장애인을 위한 점자버튼, 고령자를 위한 작동순서안내 광네비기능을 탑재한 쿠쿠 밥솥

▲ 시각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효과음 기능과 정량추출 버튼 및 잠금기능이 가미된 웅진코웨이 한뼘정수기

▲ 따뜻한가전관

▲ 세계 최초 3D모니터를 장착한 4D 자전거 시뮬레이터(H&S)

Digital Broadcasting

디지털라이프 시대로 도약하는 스마트 방송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다

풀HD가 대중화되고 4K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디지털 방송 장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용량 3D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관람객들이 이러한 3D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국내 중견 기업들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전보다 더 커진 용량의 디지털 영상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발전한 카메라, 전송 기술, 송/수신기 등이 필요하며, 한국전자산업대전 디지털방송장비홍보관에서 2013년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 디지털 전송 기술을 구현시키는 다양한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계 최초 디지털 노이즈제거 알고리즘 적용 오디오 프로세서(래드손)

▲ 다원화 방송, 믹싱, TTS 등 멀티기능 제공 방송 네트워크시스템(가락전자)

▲ 원격제어가 가능한 다수의 풀HD급 방송 소스 관리 A/V 스위쳐(드웰)

▲ 관람객들이 3D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디지털방송장비홍보관 전경

▲ 관람객들이 초대형 3D 스크린으로 3D 영화를 보고 있다

▲ 디지털방송장비홍보관 전경

▲ 3D 방송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는 VIP

▲ 국내 굴지의 음향전문기업 ㈜인터엠의 영상제어기기 HDMX-1104 등

▲ 야외 촬영 시에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보은전자방송통신 FM 시리즈 필드 모니터

▲ 유럽 모든 위성수신 가능, 완전자동 위성추적 시스템 휴대용 위성안테나(아이두잇)

▲ 셋톱박스 형식의 2D/3D 컨버터(시모스미디어텍)

▲ 손가락만한 초소형 셋톱박스 기능의 TV 업그레이더 (비비알디스플레이)

▲ 실내에서도 선명한 디지털방송 수신 가능 안테나 (스펙트럼통신기술)

▲ 고휘도 및 풀HD급 화질 유지, 야외 모니터링 편집 필드모니터(보은전자)

ICT & Multimedia

보고, 듣고, 즐기고 느껴라!
오감을 만족하는 미래 멀티미디어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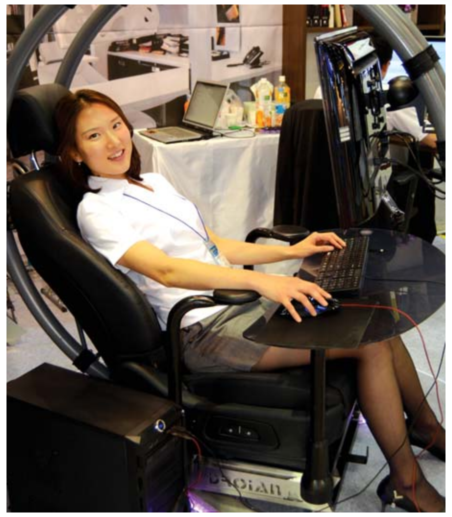
세계 최초 11.1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을 통한 3D 오디오 시스템, 현존 콤팩트 카메라 렌즈 가운데 가장 밝은 렌즈를 탑재한 파나소닉 카메라 등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미래형 멀티미디어기기들이 한국전자산업대전에 대거 선보였다.

▲ DTS의 세계 최초 11.1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 3D 오디오 시스템

▲ 국내 최초 전자칠판 핵심기술 개발, 88인치형 스마트 전자칠판(아하정보통신)

▲ 초대형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 음향시설을 선보인 ICG

▲ 현존 콤팩트 카메라 렌즈 가운데 가장 밝은 렌즈 탑재 카메라(파나소닉)



▲ 인체공학 설계로 보다 효율적이고 편안한 자세를 제공하는 컴퓨터 사용환경 시스템(드로얀 워크스테이션)

▲ 아웃도어 에디션 스포츠 카메라를 선보인 세계적 스포츠카메라 전문업체 (GoPro)

3D Ex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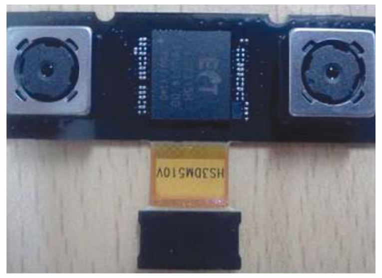
보다 더 실감나게, 보다 더 정교하게 구현된 3D 영상

영화 아바타 이후 찾아온 3D 영상 시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람의 눈을 현혹하고 있다. 이제 평면이 아닌 입체가 어색하지 않다. TV 프로그램도 3D로 방송되고 있으며, 지난 2012 런던 올림픽의 몇몇 종목 중계도 3D로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3D 영상 산업은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는 화면이 큰 영화관이나 대형 TV 속 영상뿐 아닌 모바일 기기에서도 3D 영상이 구현된다.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의 3D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산업에도 뛰어들었다.

▲ 3D 입체영상으로 생방송 중계가 가능한 3D촬영 카메라(3D미디어랩)

▲ 안경착용만으로 100인치 3D화면을 눈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큐픽스의 세계 최소형 3D HMD마이버드

▲ 가상 정맥주사 시뮬레이터 (AR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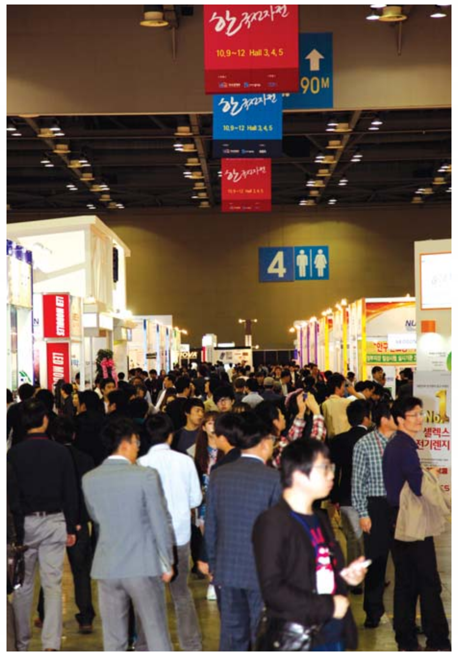


▲ 국무총리상 수상 3D 입체영상 반도체칩(에스칩스)

SoftWare & Mobile

21세기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 그 단초가 여기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운영체제인 모바일 운영체제가 등장한 이후, 운영체제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 또한 급속도로 발전 중이다. 굴지의 IT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자 힘쓰고 있다. 국내 IT 업체도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 안랩, 첨단 도청방지 시스템을 선보인 한국보안통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를 전시한 이담정보통신, 양방향 무선그룹폰을 시연한 리바이벌미디어가 그들이다.



▲ 소프트웨어 부스 전체 전경

▲ 블루투스를 통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원격 중계 스마트워치(이담정보통신)

▲ 국내 최초로 개발, 출시된 양방향 무선그룹폰 (리바이벌미디어)

▲ 많은 관람객이 안랩의 스마트 보안 솔루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세계 최초 도입 카오스틱 음향변조 회로 탑재 도청방지 시스템(한국보안통신)

▲ 악성 앱치료, 원격제어 등이 가능한 안랩의 스마트폰 보안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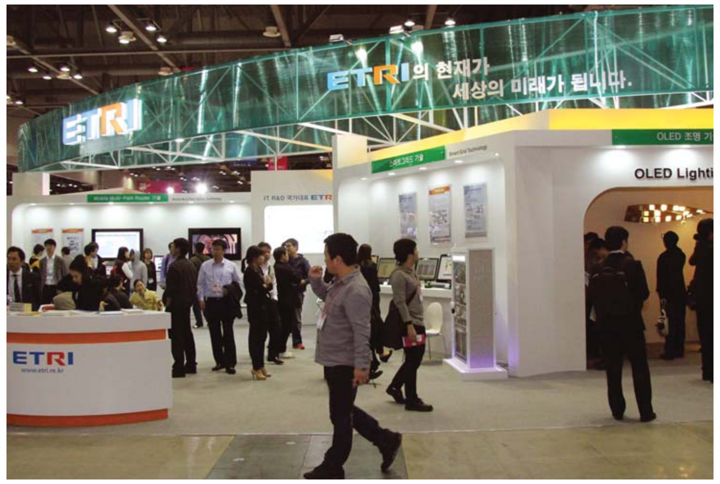
Parts & Materials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기기의 심장이 바로 여기!

2012년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꼽힌 LG전자 옵티머스G. 그 성능의 비밀은? 1,3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 강화 유리와 일체화된 터치스크린 등 LG이노텍의 첨단 부품에 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도 첨단 부품을 선보였으며 삼경세라믹, 유트로닉스, 엠엔알 코리아, 탁스코, 파인디지텍 등 자동차, 가전기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참여해 자사의 뛰어난 제품을 선보였다. 각종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자 노력한 회사들의 결실이다.

▲ 업계 최고용량 실현으로 초소형&초고용량 회로기판 제품을 구현한 삼성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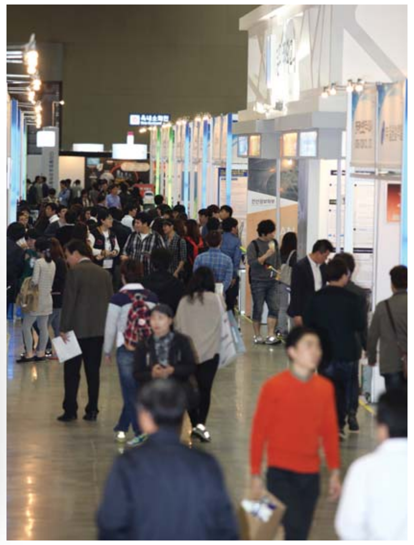
▲ 최고사양의 카메라 모듈, 차량제동 ABS 모터를 전시한 LG이노텍



▲ 차세대 OLED 조명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선보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OTFD 등 첨단 전자부품 기술을 선보인 전자부품연구원

▲ Parts & Materials관 전경



▲ 자체 설계/제작한 로봇을 시연하고 있는 동양미래대학 로봇자동화공학부 학생들

▲ EOC기술을 세계 최초 IP카메라에 적용한 트랜시버 모뎀(유트로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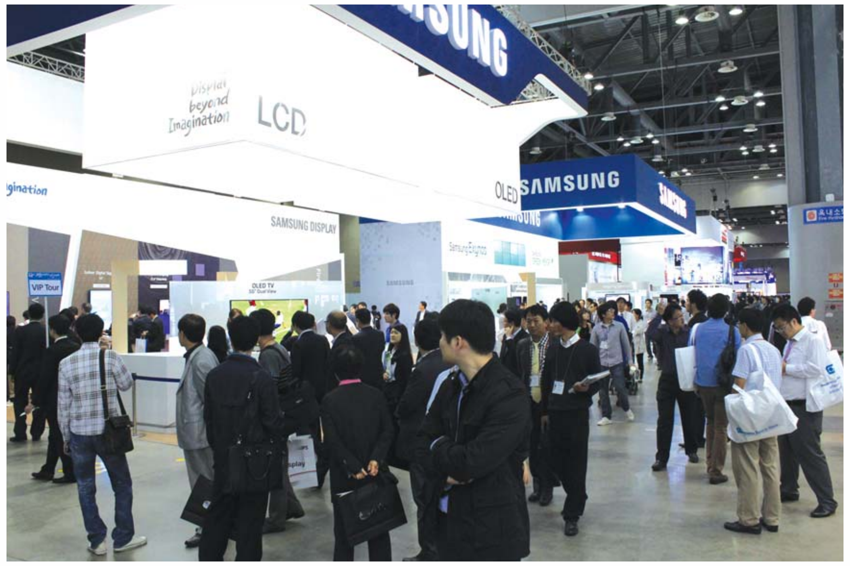
▲ 전력공급, 모바일, 모션제어, 조명 및 차량용 솔루션을 선보인 페어차일드 반도체

▲ LG이노텍의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 커버글라스 일체형 터치모듈

iMiD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경기도, Nikkei BP가 후원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iMiD) 2012'에 6개국 85개사가 총 240개 부스로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LCD, PDP, OLED, Flexible Display, Touch, 3D Display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과 장비 등을 전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우수제품전시관, Touch, 3D 등의 테마관을 운영해 일반 관람객이 디스플레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해외바이어 20개사 39명, 국내업체 28개사 36명이 무역상담회와 리셉션에 참가해 약 8,00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실계약금액: 53만 2,000달러)을 달성했다.



▲ 삼성디스플레이

▲ 삼성전자의 RGB 방식 55인치 OLED TV

▲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들

▲ LG디스플레이

▲ LG전자의 55인치 OLED TV로 3D 영상을 보고 있는 관람객

iSEDEX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경기도가 주최하는 '제14회 국제반도체대전(iSEDEX)'가 2012년 10월 9일부터 11까지 총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총 4개국 165개사가 480개 부스로 참가한 이번 iSEDEX는 국내 반도체 업체의 선전이 돋보였으며 차세대 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840 및 840 PRO 시리즈'가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이외에도 동부하이텍,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SK하이닉스, 한국램리서치 등이 참가해 자사의 반도체와 기술 등을 선보였다.

▲ 반도체 주요업체를 관람하는 VIP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동진쎄미켐

MEDIA COVERAGE

| 언론보도 |

SBS CNBC,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ZDNet Korea, 경제투데이, 기호일보, 뉴스1, 뉴스토마토, 뉴스핌, 뉴시스데이터넷,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머니투데이, 문화저널21, 보드나라, 북데일리산업일보, 새전북신문, 서울경제, 세계일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아이뉴스24 아이티데일리, 아이티투데이, 아주경제, 에이빙뉴스,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 이투데이, 전자신문, 케이벤치,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헤럴드생생뉴스, 환경일보 등 **85개 이상 주요 일간지 550개 기사 보도**

WEB MEDIA & BLOG

SALES FAIR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전시회, 국내외 바이어들이 모여 뜨거운 성과를 일궈내다!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전시회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많은 국내외 바이어들이 모여 뜨거운 상담성과를 냈다.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이집트), 유럽/미국, 중국(HQEW), CMAI(인도), SEIPI(필리핀), CETIA(카메룬) 러시아, 일본(소니, 후지제록스, 옴론, 야스카와전기, 오카와전기), 중국 IT 100강 기업사절단, 중동(Qatar, UAE, KSA) 등 글로벌 진성바이어 300명이 참여해 IT관련 제품 구매 및 수출을 상담해 17.5억불의 상담액 성과를 이끌어 냈다.

Kontemporary (Olufuye Jimson)
Korea has many well-known brands and products of high quality. We had lots of meeting with potential business partners and I saw products having high quality in KES (Korea Electronics Show). I personally think more many people need to be invited from Nigeria. Because, many companies in Nigeria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distribution Korean products to Nigeria. So i hope also to see more many completed products at this exhibition.

CETIA (TONY Smith)
It's just amazing, this is one of the world's best shows. I believe that I can find many good products featuring innovation and the latest technology in KES (Korea Electronics Show). I didn't have many choices for tablet PC, the only things we saw were just LG and SAMSUNG. I want to meet many small but powerful Korean companies producing tablet PC of high quality but reasonable price.

Limitless Cameroon (Senior Vice President chief legal officer)
It's very exciting. Korean people are very polite. Everything is almost perfect. I think Korean technology is the best, so I am highly anticipated them.

Omar Ventures (Akinyemi Arinola Juliana)
People are warm and very nice even though we had language barrier. I found lots of business opportunities to import Korean products to Nigeria. Almost African buyers are interested in completed products rather than components/part of products. I hope see more companies introducing completed products.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2

Statistical Results

| 참가실적 |

- **면　　적** : 53,541m² (킨텍스 1~5홀)
- **참가업체** : 742개사 (해외209개사)
- **참 관 객** : 57,842명 (해외바이어 2,878명)
- **상 담 액** : 17.5억불 (계약액 2.5억불)

| 부대행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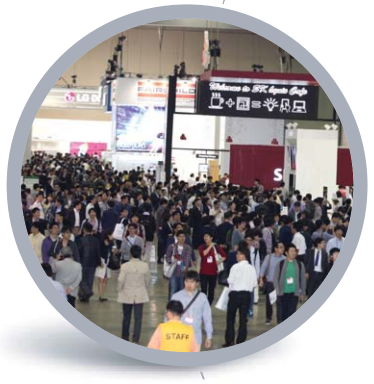
- **무역상담회** : 인도, 러시아, 중국 유통상, IT100강 기업, 일본, 아프리카, 반도체 관련 바이어 초청 Sales Fair 등
- **컨퍼런스** : Creative Futures Forum, 융복합 국제컨퍼런스 등 50회
- **이 벤 트** : Gala Show,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3D Film Festival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3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제44회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2013
기　간	2013년 10월 7일(월) ~10(목), 4일간
장　소	KINTEX (일산 킨텍스)
규　모	53,541m²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
참가업체	800개사, 2,500부스 (국내 450개사 / 해외 209개사)
참 관 객	60,000명
주　최	MKE 지식경제부, 세계속의 경기도
주　관	KEA
후　원	NIPA, ETRI, KETI, FKII, KOSEA, PAK
해외협력기관	CEAC, CCPIT, CECC, HQEW(중국), TEEMA(대만),JESA, Chip1Stop (일본), HKTDC (홍콩), AEECC(아시아전자전협력회의), IFA(독일), CES(미국), RATEK(러시아), CMAI, TEMA(인도), VEIA(베트남)

전시분야 |



ICT
Telecommunication · Mobiles · Navigation · IP · Net Solutions · Antennas · Cable · Computing · PDA · Notebook PC · Server · Solution · S/W · Storage

Imaging and Solutions
Beam-projector · Imaging Machine · Photo · Digital Camera · Printer Camcorder · Memory solutions

Multimedia and Home Entertainment
TV · DVD · Home Cinema · 3D TV · IPTV · Monitor · HiFi · Loudspeakers · Games · MP3 · Hands-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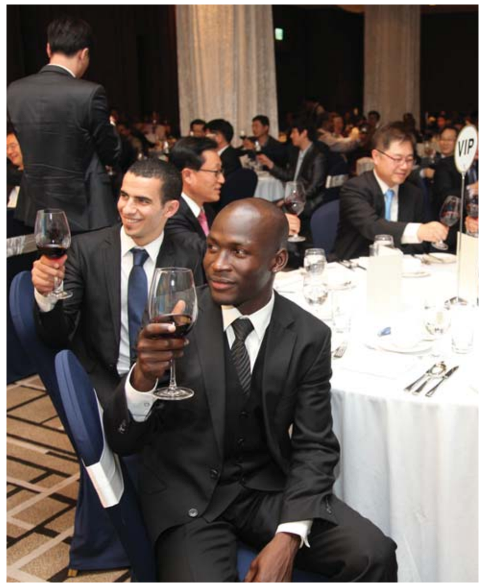
Home Appliances
Refrigerator · Air-conditioner · Vacuum cleaner · Washing machine · Dish washer · Coffee machine · Electric toaster · Beauty care appliance · Kitchen appliance

Car Electronics and Securities
Black box · Car electronics · CCTV, Networks · Bio or Sign capture · Cyber security

Convergence and Other applications
Broadcasting equipment and systems · Green IT · Digital lego · e-health · Product Design

Modules, Parts and Materials
LCD · OLED · LED · Solar · PCB · MLC · Capacitor · Resistor · PoC · Sensor · Switch

Software
Mobile S/W · Embedded System · D/W & CRM · Cloud Computing · Data Storage, Information Security · Package S/W · System Integration



참가신청 |

신청기한
2013년 6월 28일까지 선착순 신청접수

참가비 안내

※부가세별도

구　분			9m²(1 부스)
독립부스		국내	240만원
		해외	US$ 2,600
조립부스	기본형	국내	280만원
		해외	US$ 3,200
	프리미엄형	국내	320만원
		해외	US$ 3,800

독립부스 (Space Only) - 면적만 제공, 장치는 참가업체 자체 시공
조립부스 (Shell Scheme) - 면적 및 기본 장치공사 포함(기본시스템, 파이텍스, 간판, 조명 등 제공)
프리미엄부스 (Premium) - 목공장치, 테이블과 의자 제공

기본

프리미엄

참가비 할인혜택 |

조기신청할인
- 10% 할인 : 2013년 3월 29일(금)까지
- 5% 할인 : 2013년 5월 31일(금)까지

※ 기한 내 참가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참가업체만 해당

KEA 유료회원사 30% 할인
※ 단, 할인은 6/28일까지 참가비 50%이상 납부한, 100인 이내 중소기업에 한함, 중복할인 없음

VIP고객 추가할인
KES 3년 연속 참가 중소기업은 추가 5%할인(2011, 2012, 2013 연속참가)

참가비 납부
납부기한 : 2013년 6월 28일 (금)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598601-04-00157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반드시 업체명으로 입금, 송금수수료는 참가업체 부담
※ 참가신청 시 참가비의 50% 납부하고 납부기한까지 잔금납부

참가문의 |

KEA 전시마케팅팀
전화 : 02-6388-6062~8　**팩스** : 02-6388-6069　**이메일** : kes@kes.org　**홈페이지** : www.kes.org